

## ■ 외교·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교육 공약 관련 기고 보도(2017.6.15.)

지금 외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관련 새 정부의 교육 공약 찬반 공방이 뜨겁습니다.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외교 자사고 체제는 미래 교육 체제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고교체제의 전면 쇄신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단체 송인수 공동 대표가 6월 15일자 '머니 투데이'에 보낸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고교 체제 쇄신을 위한 본격적인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따로 모아 교육하는 것은 위험하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새 정부 교육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 얼마 전 시민 35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교육 공약 우선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압도적인 1순위 희망 공약으로 꼽힌 것이 외교·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었다.

외고, 자사고로 대표되는 '특권 고교'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에 너무 고달프다. 과거 20여년 전 고교 평준화 시절 '사교육 무풍지대'였던 중학교가 지금은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 중 가장 높은 곳이 됐다. 올해 초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1인당 사교육비는 각각 24만1000원, 26만2000원인 데 반해 중학교는 27만50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입시 다단계 전형의 불공정성' 이야기로 넘어가면 말문이 막힌다. 고교 입시는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와 후기고 전형으로 나뉜다. 전기고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영재고가 학생을 뽑고, 남은 학생들을 자사고와 특목고가 골라가더니 특성화고, 과학중점고를 거쳐 마지막에 남은 학생들이 후기고 전형을 통해 일반고로 배정되는 것이 지금의 고입 전형이다. 마치 석유에서 가스를 뽑고 휘발유, 중유를 뽑은 후 최종 찌꺼기로 아스팔트를 만드는 순서와 같다. 명문대 중심의 대학 입시도 이 정도는 아니다. 대학 입시를 현행 고교 입시처럼 실시하면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불공정한 고교 입시 전형은 방치되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와 특목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의 다양성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가치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몇 년 전 자사고가 얼마나 '다

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봤더니 놀랍게도 30개 자사고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자사고는 낙제점을 받았다. 대부분 자사고는 국가가 준 자율권을 남용해 일반고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 교과 중심의 입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다단계 입시제도를 붙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라고 했더니 교육은 획일화되어 버렸다. 모순이다.

특목고인 외고도 문제다. 과연 특목고라는 이름으로 일부 학생들에게만 영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온당한가. 영어와 중국어는 일반고 학생들도 습득해야 할 능력 중 하나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 지금은, 구글 번역기 등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통번역사 같은 외국어 관련 직업이 사라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닌가. 외국어 관련 학과가 사라지고 '외국어대' 간판도 바꾸려는 시대에 외고만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됐다고 인정받을 근거가 무엇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이들 특권 고교들은 성적과 부모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분리 교육 기관'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고교 단위에서 이런 방식의 분리 교육을 보편화시킨 나라는 없다. 다양한 아이들이 뒤섞인 가운데 소통하는 교육은 사회 통합의 핵심 원칙이다. 소통은 미래에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는 미래 능력의 하나로 '이질적 집단 속 소통 능력'을 꼽았다. 세상이 세계화되고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와 다른 현지인들에게 자동차, TV를 팔아야 하는 시대다. 국내 동질적인 집단에서 교육받아보야 생판 모르는 사람들만 사는 외국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성적과 부모의 직업, 아파트 평수가 같은 아이들만 속아놓은 분리교육에 익숙하게 된 아이들은 학교 밖 직업세계의 이질성에 당황하고 도태될 것이다. 분리 교육 고교 체제를 빨리 털어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